

모 두 발 언

2019. 6. 10. (월) 10:00

금 융 위 원 장
최 종 구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마포혁신타운 조성의 첫 삽을 뜨는
기쁜 날을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방금 커팅식을 마치고 로비에 들어서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놀랐습니다.
마포혁신타운 완공 후의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큰 기대감을 표시해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 만전을 기해 열심히 준비해야겠습니다.

마포혁신타운은 기존 신보 본사건물을
사무공간과 금융·멘토링 등이 종합지원되는
창업거점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지방이전계획 변경,
넓고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 재원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착공식을 개최하기까지
여러모로 지원해 주시고,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민병두 정무위원장님, 김종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층 건물의 전면 리모델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책임있게 진행하고 계신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업지원의 노하우를 지니고
훌륭한 지원체계를 함께 만들어주고 계신
은행연합회, 디캠프, 산업은행, 기업은행, 성장금융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민간 전문가께서
바쁘신 가운데 마포혁신타운 조성계획,
디자인, 네이밍의 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II. 마포혁신타운 조성 방향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도전적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 기업가치가 10억 달러(1조원)를 넘어서는
유니콘 기업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유니콘 기업수 : ('14년) 88개 → ('16년) 249개 → ('18년) 411개

혁신 스타트업의 출현과 성장은
고립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며,
실리콘밸리의 사례*에서 보듯이
잘 갖춰진 “스타트업 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 AirBnB·Uber 등 손꼽히는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액셀러레이터의
멘토링 등을 통해 성장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은,
창업 멘토링부터 아이디어 교류, 투자자금 조달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지리적인 뭉침(agglomeration)”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규모에 비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입니다.

* 美 스타트업 정보 분석기관인 Startup Genome이 발표한 「2018년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서울은 20위권 바깥 순위 (세계도시 GDP 순위는 서울이 4위)

※ 「2018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 : 1위 실리콘밸리, 2위 뉴욕, 3위 런던.
아시아권은 4개 도시(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방갈로르)가 랭크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우수한 인재,
세계 최고 수준의 ICT, 튼튼한 제조업 기반 등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스타트업의 꿈과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혁신창업공간으로
마포혁신타운이 출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곳을
국내에 산재한 창업 네트워크를 하나로 모아,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혁신창업플랫폼」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마포혁신타운은
종합지원체계, 민간 협업, 스케일업 지원이라는
세가지 키워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멘토링·인재매칭·판로개척 등
스타트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¹⁾종합지원(one-stop solution)하고,

⁽²⁾민간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운영하며,

무엇보다도
⁽³⁾스타트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중점 지원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기업이
비상(飛上)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 「하버드 창업가 바이블」의 저자인 다니엘 아이젠버그(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11년간 ‘창업가 정신’을 강의)는 “스타트업(창업)”은 중요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스케일업(성장)”이라고 강조

Ⅲ. 마무리 말씀

“나 혼자 꿈을 꾸면, 그건 한갓 꿈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새로운 현실의 출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 프리덴스라이히 훈데르트바서(오스트리아 화가·건축가, 1928~2000)

마포혁신타운은 국내외 모든 투자자와
민·관 창업지원기관들이
창의적 스타트업의 혁신과 도전,
그리고 성장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는
“혁신성장 1번지”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스타트업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축을 담당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셨습니다.

혁신창업공간이 갖추어야 할 모습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창업 생태계의 모습에 대하여
가감없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은
마포혁신타운 조성·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